

독립영화 인터뷰 전문 매거진 : NOW : 2013.O9 : NO.1 :



독립영화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EDITORIAL

우리 이렇게 살아요

지난 7월, NOW 창간 준비호를 선보인 후 많은 분들이 축하와 격려, 애정 어린 비판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런 지면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반응도 있었고, 좀 더 깊숙이 파고드는 인터뷰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단소리, 쓴소리 모두 귀담아 들으며 조금씩조금씩 나아가고 싶습니다. NOW 창간호에서는 독립영화인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사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독립영화 하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기만 할 거라는 세간의 짐작과는 달리, 우리 독립영화인들 참말이지 잘살고 있더군요.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영화를 만들고 활동하며 멋지게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8명의 독립영화인과 나눈 이야기를 기록한 이 짧은 글들로 독립영화인들의 삶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속내를 조금쯤은 헤아려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청주의 생활교육공동체 공룡의 사람들 역시 참 멋지게 사는 독립영화인들입니다. 뭐든지 성과를 내야만 인정받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을 좇지 않고 느릿느릿 함께 사는 삶을 고민하며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공룡의 발걸음처럼 느리지만 확고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삶을 꾸려 가는 그들의 모습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공개 동성 결혼식으로 기록된 '당연한 결혼식' 며칠 전에 만난 김승환 역시 그런 행복한 독립영화인 중 한 명입니다. 당연한 결혼식의 주인공인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함께 동성애 인권 운동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들을 들어 봤습니다.

독립영화 인터뷰 전문 매거진 NOW,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기사의 기획과 디자인은 실현을 계속할 겁니다. 재미나고 흥미로운 제안과 날카로운 비판, 적극적으로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은아



CONTENTS

02 EDITORIAL

03 SPECIAL 독립영화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12 HOT SPOT 청주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17 ISSUE 당연한 결혼식과 김승환

20 Q&A [해피투게더 독립영화] 한지혜 감독 작품선

22 다은의 남다른 시선 김곡, 김선의 <방독피>

23 성찬의 영화상찬 김응수의 <물의 기원>과 현대사 3부작

24 원승환의 쓴소리

25 시와 뜬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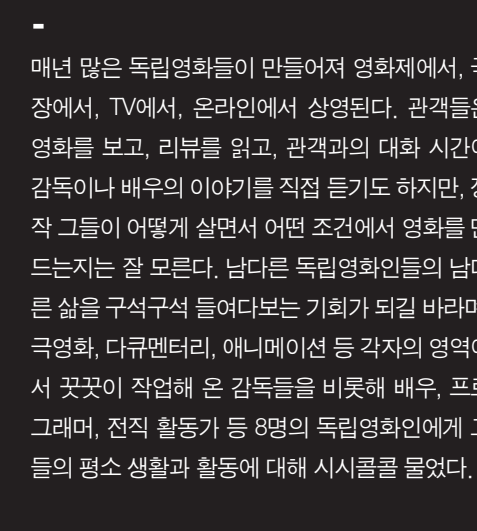
26 INDIE TALK_ 나는 독립영화를 이렇게 시작했다

28 INFORMATION

SPECIAL

독립영화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독립영화인 8인이 말하는 그들의 삶과 영화



매년 많은 독립영화들이 만들어져 영화제에서, 극장에서, TV에서, 온라인에서 상영된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고, 리뷰를 읽고,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 감독이나 배우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도 하지만, 정작 그들이 어떻게 살면서 어떤 조건에서 영화를 만드는지는 잘 모른다. 남다른 독립영화인들의 남다른 삶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각자의 영역에서 곳곳이 작업해 온 감독들을 비롯해 배우, 프로 그래머, 전직 활동가 등 8명의 독립영화인에게 그들의 평소 생활과 활동에 대해 시시콜콜 물었다.

일인다역 강석필의 산전수전공중전

다큐멘터리 <춤추는 숲>의 감독 강석필은 드물게 독립영화의 넓은 스펙트럼을 경험했다. 1997년 서울 영상집단에서 출발해 프로듀서와 기관 활동을 거쳐 영화제 프로그래머로 일했고, 지금은 인천영상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지역 영화 생태계 구축을 고민 중이다.

서울영상집단 당시 활동 여건은 어땠나?

제작 시스템이고 배급 여건이고 자체가 없었던 것 같다. 하루 벌어 하루 풀칠하는 정도, 사람들 활동비는 당연히 한 푼도 없었고, 당시 푸른영상의 푸른회원 제도가 그래서 참 부러웠다. 그 동네에서는 그 회비 덕에 몇 푼이라도 활동비를 받고 있었으니까. 뭐 홍보 영상이나 교육물 같은 걸 만들어서 사무실 임대료 마련했던 기억.

그러다 서울영상위원회, 경기영상위원회 같은 기관에서 일했다. 아무래도 활동이 남달랐을 것 같다.

맞다. 현장 출신인데다가 독립영화 쪽이었기 때문에, 일반 단체나 충무로 출신과는 고민도 감수성이 달랐다. 가능하면 주류와 비주류(말하자면 상업영화와 독립영화)가 함께 잡힐 수 있는 쪽을 지향했다. 기관은 모양새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독립영화 쪽의 문제점도 보였다. 일종의 독선과 아집이랄까.

<경계도시2> 이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돌아오니 어땠던가.

2000년대 초 <경계도시>를 시작으로 <경계도시2>까지 7년의 시간을 보냈다. 뭐 에 카우느라 바빴다. 분유 값 기저귀 값 벌어야 했으니까. 2007년 말 작업을 마무리하고 처음 한 것이 서울독립영화제에 찾아간 거였는데, 인디스페이스 로비에 들어섰을 때 아는 얼굴들이 하나도 없어서 당황했었다. 김일권, 원승환 등의 얼굴을 볼 때의 안도감이란(웃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로그래머를 하면서 제작 지원 프로그램을 신선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영화제 할 때도 제일 고민했던 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다. 이래저래 돈 모아서 제작 지원 많이 하고 독립다큐들 많이 틀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저것 시도도 해 봤지만 확실히 영화제라는 한정된 틀 안에서 한계도 많았던 듯하다. 해외의 환경은 어떤가?

엄밀히 말해 제작 여건과 배급 환경에서 제도와 인프라만 놓고 보면 한국은 해피한 상황. 일례로 환경영화제 때 심사위원으로 온 전 핫독스 프로그램디렉터에게 개봉 문제로 신세 한탄을 했더니 "전 세계 어딜 가나 마찬가지다. 캐나다 토론토만 하더라도 다큐멘터리 개봉하는 작품이 일년에 몇 편 안 되고 스크린도 한두 개가 전부다." 하더라. NFB라는 막강한 후원군을 갖고 있는 캐나다도 그렇다. 문제는 관객 저변이다. 참 풀리기 어려운 숙제다.

아무튼 일인다역이다. 잘나가는 독립영화인의 모델은 슈퍼맨 이어야 하는 건가?

'잘나가는 슈퍼맨? 헐. 한마디로 뽐이 치고 있는 거지. 사실 독립영화를 하려면 다 일인다역을 해야지 않나? 그렇지 않은 생활이 안 되니까. 독립영화, 그것도 다큐멘터리를 선택한 숙명이지 싶다.

다음 작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춤추는 숲> 후속편이다. 성미산마을 3부작의 2부와 3부를 제작 중이다. 2부는 일단 <소년, 달리다>라는 제목을 달았고, 마을에서 커 가는 소년 3명의 중3 시절부터 촬영해 왔는데 지금은 이미 20대 초반이 됐다. <춤추는 숲>보다 많이 가볍고 발랄할 것 같다. 일종의 <덤앤더머>나 <세 얼간이> 콘셉트? 곧 편집에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 완성 예정. 3부는 좀 더 내면적인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 성미산마을의 1세대 어른들에 대한 얘기다.

취재 김동현 | 사진제공 강석필

독립 아빠 감독 장전제

올해 5월 결혼 2년차 커플의 평범한 일상을 솔직하게 담아낸 <잠 못 드는 밤>으로 관객을 만난 장전제 감독. 시네마테크 문화학교서울을 드나들던 '고딩'이 독립영화 감독이 됐고, 독립영화 유부(有婦) 감독에서 이제는 아빠 감독이 되어 프로듀서인 아내와 함께 영화사 모쿠슈리를 이끌고 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

<판타지아>라는 제목의 새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8월에 일본 촬영 분량을 마치고 돌아왔다. 곧 편집을 시작할 예정이고, 추가 촬영과 후반작업을 위한 비용을 마련 중이다. 무사히 마무리된다면 내년 5월 쯤 완성될 것 같다. 그리고 <잠 못 드는 밤>이 해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몇 군데 참가할 것 같다. 올 3월에 아기가 태어난 것도 생활의 큰 변화. 이제 제 몸을 스스로 뒤집을 수 있을 정도가 됐다.

2년 전 KMDb [독립영화 칼럼]에 쓴 '유부남이 되다'라는 글을 봤다. 결혼 후 당면한 현실에 부딪혀 가는 이야기가 무척 리얼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나와 아내는 오랜 시간 아이와 함께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기꺼이 그 삶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지금은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중이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대학에서 영화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됐다. 경제적인 부분에도 도움이 되지 만 에너지를 분산하지 않고 영화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다행스럽다.

독립영화를 처음 시작했을 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나?

2003년 옴니버스 프로젝트 <제국>에 감독과 촬영감독으로 참여하면서 독립영화 작업에 대한 자의식을 갖게 됐다. 하지만 전에 영화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작가영화나 대안적인 제작 방식의 영화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그 뿌리를 생각해 보면, 내가 처음 영화 공부를 시작했던 문화학교서울이 아닐까 싶다.

1998년부터 꾸준히 작업을 해 왔다. 그동안 제작비는 어떻게 마련했나?

<학교 다녀왔습니다>(1998)는 실제로 중국집 배달을 해서 번 돈으로, <회오리바람>(2009)은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받은 독립영화 제작 지원금이 큰 몫을 차지했다. <잠 못 드는 밤>(2012)은 생활비가 곧 제작비였다. 나를 포함한 4명의 스태프가 집에서 함께 먹고자면서 두 달 정도 촬영했다.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끈기의 원천이 있다면?

무엇보다 건강해지려고 애쓴다. 영화 촬영 전 가장 공을 들이는 일 중 하나가 시즌을 준비하는 운동선수처럼 체력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경제적인 싸움은 나와 돈과의 심리전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해서 최대한 즐겁고 명랑한 방식으로 버티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훌륭한 협업자가 옆에 있다는 것도 큰 힘이다. 어쨌든 창작자로서 어려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영화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 작은 점으로 흩어져 있는 각자의 노력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독립영화의 매력도 바로 이 점에 있는 것 같다. 각개전투와 연대비행!

영화사 이름이 '모쿠슈리'(나의 혈육이라는 뜻)다.

그 단어를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영화 <밀리언달러 베이비>에서 처음 접했다. 뒤늦은 나이에 자신의 꿈을 이뤄 나가는 과정에서 좌절을 맞이하는 주인공을 보면서 마치 내 이야기처럼 슬펐다. 그 영화에 대한 인상이 강했는지 첫 장편 <회오리바람>을 배급하기 위해 영화사를 차리는 과정에서 회사 이름을 '모쿠슈리'로 정했다. 단어의 의미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화들, 모두 내 심장 같은 존재들이다.

취재 박현지 | 사진제공 장전제

‘영화 찍는 여인’ 김동명

2011년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독불장군상을 수상한 <피로>의 김동명 감독은 꾸준히 독립 영화를 해 온 ‘드문’ 여성감독이다. 2002년 <차원의 정의>를 만든 이후 지금까지 일곱 편의 영화를 만들었고, 인디포럼 상임작가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영화는 어떻게 시작했나? 대학 졸업 전에 뭔가 해 보자 하다가 영화를 찍어 보고 싶었다. 우연히 곡사가 스테프 모집하는 걸 보고 같이 <반변증법>을 찍었다. 그 친구들은 집에 있는 캠코더와 마대 자루에 랜틴을 달아 들고 다니며 영화를 찍더라. 거대한 작업이었다면 계속 안 했을 텐데, ‘영화를 이렇게 찍을 수도 있구나’ 알게 돼서 가능했던 것 같다. 그다음에 바로 그 친구들 카메라를 빌려 영화를 찍었다.

곡사와 오랫동안 함께 작업했다.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나? 나는 작업을 많이 도와줬는데 이 친구들은 별로…….(웃음) 곡사가 의미 있는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나도 덩달아 춤출 수 있었다. 재밌는 생각을 하며 재밌는 작업들을 했다. <피로>를 만들면서 작업은 완전히 분리됐다. 같이 작업하는 게 힘든 부분도 있어서 나는 나대로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대로 가기로 했다. 그게 오히려 맘이 편한 것 같다.

요즘 근황은 어떤가? 장편 시나리오 작업 중이다. 예산이 부족해 계속 밀리다가 9월 말 크랭크인 예정이다. 막바지 준비 중인데 맘이 복잡하다. 제작 지원을 받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진행하려니 어렵다.

그 이상 확보된 제작비는 없는 건가? 그렇다. 얹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불안하다. 제작사들도 찾아다녀 봤지만 여의치 않았다. 준비된 규모에 맞춰서 해야 하지 않겠나. 일단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차에 올라탄 것과 같아서, 어쨌든 진행하고 완성해야 한다. 겁내서 멈출 수는 없다. 제작 지원을 받으면 일단 시작은 가능하지만 한계와 제약도 많다. 이게 전체 제작비가 될 수 없다 보니 막상 시작하려면 애매하다. 제작사를 찾아다니도 그것도 잘 안 되고, 제작이 중단 되면 지원금이 환수되니 빚으로 남는다는 부담도 있다. 시작은 하지만 어떻게 끝맺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일단 가 보는 거다.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나? 예전엔 과외로 돈을 조금씩 벌었는데 이젠 아예 그런 걸 안 한다. 가끔 미디어트에서 강의 들어오면 하는 정도가 전부다. 돈에 강박관념을 잘 안 느끼는 것 같기도 하다.

영화 한 지 10년이 넘었다. 독립영화를 왜 계속 하고 있을까?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와 버렸다. (웃음) 애증의 관계다. 정을 주고 싶은데 계속 도망가는 애인 같달까. 영화를 만들면 결과야 어쨌든 좌절도 하고 동기도 생기는 양가적인 면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알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마냥 뭔가를 주고 마냥 나를 내치는 곳이 있다면 아마 금방 지쳐 떨어져 나갔겠지.

앞으로 김동명 감독의 영화는 어떻게 흘러갈까? 영화는 어디선가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이상한 나라의 바툼바>를 찍으며 영화가 개인의 영역이 아닌 공동의 작업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영화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자신도 없고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 영화를 그만둘 생각을 했다. 2년 동안 방에 있다가 예전으로 돌아가 다시 해 보자며 친구들과 <피로>를 만들었는데, 원기 회복 같은 느낌이 있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약간의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축적되다 보니 재미도 없어지고 자신도 없어져 그만뒀어야지 하다가도 ‘이것만 찍고, 이것만 찍고’ 하게 되더라. 일단 이번만 찍어 보고 다시 생각해 보려 한다.(웃음)

취재 최민아 | 사진 김지은

뭐 먹고사십니까?

수십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먹고살아 왔던 거 같다. 최근에는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상의 기자 캠프 진행을 보면서 사무 보고 학생들 인솔도 했다. 무안에 있는 고구마 농장에서 할머니들이랑 같이 농장일도 했었고, 그 밖에 노가다, 텔레마케터, 진화 상담 조사도 하고, 성미산학교 사진 교육도 했었고, 한국영상자료원에서 GV 촬영, 녹취 알바도 하고…….

그렇게 일하면서 영화를 찍는다는 게 대단하다.

어릴 때부터 영화를 계속 좋아했고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혼자서 작업하다가 결국 영화과를 못 갔다. 20대 중반이 될 동안 영화를 못 했다. 그러던 중에 스물셋, 스물네 살 때 카메라를 샀다. 어디 다닐 때마다 촬영을 해서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혼자 편집도 해 보다가, 대학교 3학년 막바지에 <노동자의 태양: 편의점 야간 파트타이머의 고통>을 찍은 거다. 그때도 그냥 일하는 공간에서 동생과 친구의 도움을 받아 특별한 제작비 없이 만들었다. 그다음 <미륵동 서커스>, <서울의 예수, 강변의 누이>도 다 여행을 하거나 일상에서 찍은 파편들을 붙여서 만든 거다. 그러다 보니 자동기술적이고 실험영화 같기도 한, 모호한 장르의 영화들이 나온 것 같다.

어떻게 독립영화 판에 입성하게 됐나?

어릴 땐 독립영화 쪽을 모르다가,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일을 하게 됐다. 극장 운영팀에서 영사도 하고 시간표도 짜고 월간지도 만들었다. 영화제도 많이 했었는데 서울독립영화제 때도 데일리팀을 했다. 그러다가 전에 몰랐던 걸 알게 됐고 감독이나 활동가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보게 됐다. 독립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다. 그렇지만 지난 내 영화들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독립영화가 아니었더라면 포기했거나 멈췄거나, 그래서 아예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보통 제작비와 생계비는 어떻게 마련했나?

최근까지는 제작비가 거의 없었다. 갖고 있는 노트북이랑 DV 카메라로, 계속 살면서 찍을 영화들이라서 배우도 없이 찍었으니까. 일하면서 찍은 건 더 그렇다.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사는 거고, 지난 몇 년간 영화 하는 것도 약간 그런 방식이었던 거 같다. 초저예산으로 어떻게든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만들어 내자, 라는 생각.

촬영할 때 일과 작품을 조화시키는 나름의 방식이 있나?

노가다하면서 <32.5공수, 건설노동자의 날땀> 찍을 때 일이다. 애초에 돈도 없지만 영화도 만들려고 생각하고 갔다. 촬영은 낮잠 시간에 한 시간 반 동안 현장에 몰래 올라가서 했고, 일하면서는 틈틈이 휴대폰으로도 찍었다. 주변 풍경 촬영은 주말에 쉬는 날이 있으면 찍었다. 인터뷰는 숙소 생활하면서 좀 친해진 다음에 찍었다.

영화생활인 늘샘의 편력기

영화감독 늘샘에게 생활이 곧 영화가 된다. 2009년 <노동자의 태양: 편의점 야간 파트타이머의 고통>이라는 ‘비정규직 학생의 노동일기’를 선보인 후, 5년 동안 돈 벌면서, 여행하면서, 사랑하면서, 싸우면서, 바로 그 시간들을 8편의 영화로 만들어 왔다.

최근 근황과 다음 작품 계획은 뭔가?

2011년에 한국에서 못 가 봤던 곳을 위주로 한 바퀴 돌면서 <남한기행>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외국 여행 다녀오면서 <늘샘전축국단길의 노래>를 만들어 왔다. 원래 극영화를 하고 싶었는데 계속 여건상 못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나리오를 써서 좀 다른 영화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일도 해야 돼서 생각만 2년째, 3년째다. 그렇지만 예전보다 간절하니까 쓸 수 있지 않을까.

취재 김유리 | 사진제공 늘샘

혼자서도 잘해요, 1인 제작의 달인 김진만

국수, 흙과 나무, 목각 인형과 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로, 이제까지 결코 보지 못한 애니메이션들을 만들어 온 김진만 감독. 시나리오에서 세트 제작, 촬영, 편집, 심지어 목소리 연기까지 모든 작업을 혼자 다 해내는 그의 수작업 정신과 여유로운 생활 이야기.

어떻게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하게 됐나?

집안 형편으로 고3이 돼서야 갑자기 미대 입시를 준비하게 됐는데, 〈우리들의 천국〉이란 드라마에서 이승연이 조각하는 장면을 보고 “저거다!” 싶었다. 그래서 조소과에 갔는데, 군대 갔다 와서 시각디자인을 복수 전공하면서 졸업 작품으로 〈볼록이 이야기〉를 만들었다. 근데 난 어릴 때부터 미술보다 도(道)에 더 관심이 많았다. 졸업하고 한 2~3년 절에 다니며 참선을 오래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그냥 이 세상 즐겁게 살다가 자결심하고 애니메이션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다. 스톱모션을 택한 이유는, 전자파를 싫어해서. 핸드폰이나 마우스만 오래 잡고 있어도 손가락이 굳는다. 원래 조소를 했기 때문에 뭘 만드느라 공간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것도 한 이유일 거고, 애니메이션 안 했으면 카페를 차렸을 거라던데?

중고등학교 때 사업 구상이 많았다. 젊은 프랜차이즈 사장을 꿈꿨는데, 미술을 시작하면서 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서,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고 바뀐 거지. 커피를 좋아해서 집에서 직접 무쇠솥에 로스팅해 먹기는 한다.

요리도 잘할 것 같던데.

요리 원래 잘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집사람 실력이 워낙 좋아 난 안 한다. 〈오목어〉 마지막 장면도 집사람이 다 세팅해 준 거고, 나는 촬영만 했다. 원래 내 스타일은 국수를 삶아 국수장국 넣고 비빔 다음 충무감찰처럼 마른 김에 싸 먹는 거다. 맛있는데, 사람들은 안 좋아하더라.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나?

한 10년 전부터 고등학교에서 조소를 가르치고 있다. 학교 월급으로 그냥 먹고 산다. 해마다 전세금 올려 줘야 하니까, 조금씩 저축도 하지만. 집사람은 결혼 전에 출판 기획자였는데, 밥 먹는 거 말고 돈 쓸 일도 없고 해서 일을 그만두었다. 돈도 안 쓰는데 뭐 하러 돈을 버냐고. 남한테 일자리 주라고. 작품 제작비는?

〈볼록이 이야기〉 빼고는 다 지원금 받아서 만들었다. 모자라면 벌어서 채워야 하지만, 가급적 외부 일은 안 하려 한다.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데, 다른 일에 에너지를 쓰면 내 작품을 못 만든다. 돈을 벌려다 보면 여가가 사라지고, 그러면 에너지가 소모되고, 작품에 대한 열정도 같이 사그라진다. 일은 가급적 줄이고, 여가를 최대한 늘려 그 시간에 작업을 한다.

작품 만들고 나서 재료들은 어떻게 했다?

〈볼록이 이야기〉 국수는 버렸고, 〈오목어〉 국수도 인디애나페스트 때 전시하고 나서 버릴 예정이다. 벌레가 생겨서 보관할 수도 없다. 〈소이연〉 점토관이랑 나무들은 몇 개 남기고 버렸고, 〈그들〉 목각 인형들이야 부피가 얼마 안 되니까 다 보관해 놔다.

장편이나 실사를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나?

아직까지는 떠오른 게 없다. 난 작업 하나를 하고 있으면 그걸 끝내야만 다음 게 떠오르는 스타일이라, 미래에 대해 생각하거나 계획을 하진 않는다. 장편 할 때가 됐지 않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때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나에 맞춰 살고 싶다. 편하게, 즐겁게.

다음 작품은 어떤 건가?

〈춤추는 개구리〉라고, 실리콘으로 만든 개구리 250마리가 나온다. 제대하고 나서 몇 년간 춤에 푹 빠져 있던 시기가 있다. 그때 내가 만들었던 여러 안무들을 개구리를 통해 표현하려 한다.

취재 김은아 | 사진 김지은

연기로 먹고사는 배우 장리우, 사람 장리우

배우 장리우와의 대화가 진행될수록 잠자고 있던 마음이 간절거렸다. 이로울 쥘(리)에 비 雨(우), 사람들에게 단물을 주는 사주라 해서 직접 지었다던 배우의 이름은 사람과 닮아 있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얼마 전에 장편 촬영했는데, 해남까지 내가 운전해서 갔다.

〈방독피〉(2010, 김곡/김선)도 개봉했다. 〈방독피〉 말고도 〈벌거숭이〉(2012, 박상훈), 목소리 출연한 〈사이비〉(2013, 연상호)도 개봉할 거고, 상업영화도 두세 편 있다. 자본이 있는 영화 찍으며 돈을 벌고, 자본이 없는 영화도 찍고 그렇게 산다. 배우에게 중요한 건 연기로 돈을 벌어먹는 거라, 올해 처음 제작사에 프로필 투어를 했는데 기분이 묘했다. 연락 안 온 데도 많다. 프로필이 개판이고, 그래도 직접 만났을 때 떨어진 적은 거의 없다. 오디션 세 개 봐서 세 개 다 됐지, 정말 단역. 먹고살려면 오디션 잘 봐야 해.

프로필은 누가 만들었나? 내가.(웃음)

생계 걱정은 없나? 걱정은 되지만 다행히 빚은 없다. 난 있으면 쓰고 없으면 없이 사는 편이다. 신용카드도 없고, 돈이 필요하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최근에 친구 카페에서 일하다 연기를 못 할 것 같아 그만뒀다. 사실 〈고갈〉(2008, 김곡) 하기 전에 연기를 그만두려고 했었다. 연기를 더 하고 싶어도 작품도 별로 안 들어오고, 돈은 벌어야 되고, 예전엔 하도 나를 안 써 주니까, 내가 찍을까 그런 생각도 했다. 배우들 중에 그런 생각 하는 사람 많다. 〈고갈〉 찍고 나서 연기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지. 요즘엔 나한테 배우고 싶어서 개인 2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재밌다. 아동센터에서 하는 영화 만들기 수업에서 중학생들도 가르치는데 강의료가 좀 세다.

출연료는? 요즘엔 얼마 정도 챙겨 주더라. 돈이 없다 하면 없는 대로 하고, 돈이 없는 만큼 자유로움이 있으니까, 가족 같기도 하고.

〈벌거숭이〉 현장에서는 정말 얼마 같았다고. 독립영화 현장 가면 많이 도와주려 한다. 짐도 나르고, 밥을 해 줘도 되고. 원래 오지랐이 닐다. 보면 못돼 보이고 세 보이는데, 알고 보면 참견하는 거 좋아하고 푼수 같고, 엄마를 닮았나 봐. 나눠 주는 게 좋다.

강렬한 역할을 많이 맡았다. 쉼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괴물 같은 사람도 사람이고, 미친 사람도 사람이니까. 무슨 역할이든 내가 진짜 그 역할을 하고 싶어서 한 거다. 자기 역할을 사랑하고, 동정이든 동정이든 사랑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않나. 그 힘으로 하는 거다.

연기는 어떻게 시작했나? 원래 연출 전공이었다. 연기한다는 걸 아빠가 너무 싫어해서서 감독 되고 싶다고 거짓말하고 연극영화과에 들어갔는데 우여곡절 끝에 연기 수업도 들었다. 할 수 있는 스테프 다 해 보고, 졸업 후 연극도 하다가 25살 때 윤성호 감독을 만나 〈이렇게는 계속할 수 없어요〉를 찍었다. 그걸 김곡, 김진이 보고 〈정당정치의 역습〉을 같이 찍자고 캐스팅했다. 그러면서 독립영화 인생이 시작됐다. 평소엔 뭐 하나? 작품 하기 전에 항상 탑골공원에 가서 나이든 사람들을 본다. 인간이다 보이는 것 같은 느낌. 그림도 그리고, 아, 그림 좀 실어 줘. 최근에 그린 거 좋은 거 있다.(웃음)

장여사란 이름으로 아스트로 노이즈, 곡사와 음악 공연도 하더라. 내가 하고 싶으면 그걸 다 하는 편이다. 세로운 것을 하고 뭘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배우려면 돈이 든다. 지금 제일 배우고 싶은 건 랩이다.(웃음) 취재 신미혜 | 사진 김지은



독립영화 활동은 어떻게 시작했나? 제대한 후 너무 심심한 와중에 정동진독립영화제의 존재를 알고, 강릉씨네마떼끄에 놀러갔다가 김동현(현 서울독립영화제 사무국장)의 미모에 그만 깜짝 놀라 바로 놀러앉아 버린 것이 오늘의 이 사태를 불러온 것이 아닌가 싶다. 강릉씨네마떼끄는 당시에 고전영화보다 한국 독립영화를 더 열심히 봤다. 그러다 보니 자주 많이 왔고, 또 그러다 보니 재미있다는 측면에 걸려든 거 같다.

밥은 먹고 다니나? 페이스북에 보니 찬장 가득 쇠고기면만 있던데? <봄날은 간다>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거 나 먹으려고 가져다 놓은 라면 아니다.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드문 독립영화인이다. 비결이 뭔가? 복학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임대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한 거다. 강릉문화의집 김문란 실장님과 강원일보의 조상원 기자님이 “넌 이거라도 안 하면 잘살아 보려야 잘살아 볼 수 없을 거”라며 적극 권유해서서 마지못해 한 달에 2만 원 내는 걸로 가입했는데 이게 내 인생의 로또가 될 줄이야. 30년 임대아파트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기에 아무 생각 없이 내 왔더니, 25명 뽑는데 25등으로 당첨! 무려 3년을 꿈쩍 않고 기다렸더니 20평 아파트가 내 앞에 뚝딱! 그 이후 전국

의 수많은 독립영화인들이 “박광수도 했는데 내가 안 되겠다!”라는 착각에 빠져 임대청약 러시를 이뤘으나 공공임대 아파트를 탄 독립영화인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동안 어떤 독립영화인들이 그 집에 머물렀나? 글썄, 어디 자랑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어서, 강릉에 자주 놀러오는 조영각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은 그냥 식구 수준이고, 안방을 쫓더니 내친 김에 주인 행세까지 해 했던 <종로의 기적> 이혁상 감독이나 사나리오 쓰러 왔다더니 체류 기

독립영화계 내 집 마련 성공 신화 박광수

본업은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의 수석 프로그래머, 전직은 강릉씨네마떼끄 사무국장, 성수기엔 정동진독립영화제 대표 MC, 주말엔 독립영화인 야구단 2번 타자, 때로는 독립영화인 전용 게스트하우스 총무님, 아주 가끔은 독립영화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독립영화계 만능 엔터테이너 박광수의 너무나도 맑고 투명한 사생활.

간 내내 ‘하이킥’만 시청했던 <줄탁동시> 김경목 감독, 하룻밤 재워 줬더니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집안 곳곳을 청소해 놔던 <통파리> 양익준 감독, 스키장 방문에 따른 중간 보급기지로 우리 집을 사용했던 <레드 마리아> 경순 감독, 무더운 여름 작은방에서 홀로 외로이 일드를 마스터했던 홍수영 상수동카페 마담, 단 하루 체류에 화장실 번기를 뚫으

로 막아 버린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활동가들(중 한 명), 좋은 세상 오면 난 이 집에 혼자 살긴 힘들 거라는 악담을 퍼붓고 간 김명준 미디어엑트 소장, 3박4일 내내 누워만 있다가 발로 이불을 찢어 놓은 이진필 감독, 숙박 후 우리 집의 극렬한 찬양자가 돼 버린 이원우 감독 등등 만

방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여성들의 방문이 오히려 더 많았으나 그 명단은 비밀로 해 두겠다.

취재 박현지 | 사진 김영일

협회 사무차장은 어떻게 맡게 됐나?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전망을 고민하던 중, 문화학교 서울과 노동자뉴스제작단, 푸른영상을 찾아갔다. 그때 문화학교서울에서 인디포럼 자원활동가를 모집했는데, 웬지 ‘이거다’ 싶어 지원했다. 너무 재밌었다. 그즈음 김동원 감독님이 음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을 계기로 젊은 영화인들이 한국독립영화협회 발족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창립 핵심 멤버였던 조영각에게 조심스레 의사를 표명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일했던 조영각의 첫인상은 어땠나?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 술을 참 많이 먹었고, 돈은 너무 없었고, 당시 이지상 감독 영화를 제작한 후 빚을 지고 있어 무척 딱했다. 그럼에도 철없이 술 사 달래는 이지상 감독님이 어찌나 밍던지.

사무실 운영은 어떻게 했나?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분위기였다. 지금 같은 지원인프라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다들 땀뿜 뚫었다. 회원들에게 개인 5만 원, 단체 10만 원씩 회비를 걷어 운영했는데, 아이쩍 사장님이 천만 원을 쾌척해 주서 큰 도움이 됐다. 사무실도 후원을 받았는데, 이상인 감독이 영화 <질주> 준비하며 제작사인 한울씨네 공간을 같이 썼다. 평수가 꽤 커서 단편영화 들어가는 감독에게 대여하기도 했다. 관리비도 부담스러웠으니까. 나랑 영각 형 월급은 20만 원이던 시절. 사무실 오픈식에 직접 전 부쳤던 기억도 나고, 일일호프도 하고 그랬다.

독립영화계의 알부자라는 별명과 홍수영 펀드 기억하나?

협회 일할 때 이미 천만 원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악했다. 또 정말 오래 애인이 없어서, 유령처럼 홍수영 펀드 얘기가 떠돌았다. 일종의 독립영화 제작 펀드인데 대가가 가혹했지. 한번 받으면 홍수영을 평생 책임져야 하고, 심사는 사나리오 그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면접, 무조건 남자.(웃음)

한미FTA 투쟁 당시 물적 지원도 했지 않나.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일하며 상대적으로 월급 많이 받는 것이 미안해서, 좋은 데 쓰겠다며 매달 5만 원씩 적립하고, 사람들 만나면 회도 사고 그랬다. 그러다 홍콩 투쟁 때 100만 원을 쾌척했던 거다. 근데 후에 그 돈을 돌려받았다. 황정민이 밥순이가까 CF로 3천만 원을 받아 현장 스태프에게 기부했는데, 이현승 감독님이 천만 원을 독립영화 쪽에 주셨다. 당시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허영이 고맙게도 나를 챙겼다.

한독협 1대 사무차장 홍수영의 야무진 꿈

현재 상수동카페를 운영하는 홍수영은 한국독립영화협회 초기 살림을 꾸렸던 주인공이다. 특유의 근검절약으로 주변인들의 허를 내두르게 했던 그녀의 살뜰함은 어떻게 독립영화 단체에 보탬이 되었을까? 그때 그 시절 얘기.

인디다큐페스티벌 이후 꽤 길게 카페를 준비했다.

활동 점으며 심리적 공황감이 컸다. 기동뿌리가 쑥 뻗혀 나가는 느낌. 하지만 여기서의 인연은 다한 것 같았다.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며 두 가지를 생각했다. 독립영화를 떠나면서 이바닥을 발판으로 돈을 벌지 말자. 이미 애정이 다했음에도 독립영화로 돈을 벌거나 자리를 만들려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러기 싫었다. 차라리 내놓고 돈을 벌어 개인적인 차원에서 독립영화 제작 지원을 하지는 야무진 꿈을 가졌다.

상수동카페 오픈 후 어떤가?

전엔 지겹게 애인도 못 만났었는데, 가게 하면서 좋은 인연도 만나고 건강도 좋아졌다. 돈 많이 벌면 제작 지원을 하고 싶다는 꿈은 여전하다. 지금은 매월 단체에 조금씩 후원하는 것에 만족하지만, 언젠가 2차 홍수영 펀드 꼭 하고 싶다. 기준은 이젠 남자가 아니어도 되고, 장르 불문하고 내 맘대로, 뭐 어떤가.

취재 김동현 | 사진 김지은



청주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새로운 삶을 향해 모인 이들은 그 삶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을 찾는다. 하고 싶거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우리'의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만난 또 다른 '우리'와 함께 살아가다. 생활교육공동체 공룡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책을 읽고 커피를 내리며 발을 일궜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와 연대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다. "공부해서 용 되자"의 줄임말인 '공룡'은 2005년 처음 태동을 시작했다. 충북 청주의 사회교육센터 '일하는사람들'에서 운영하는 노리울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던 미디어 활동가 이혜린, 전종민과 지역 운동가 박영길이 의기투합했다. 세 사람이 주도한 공부모임에서 출발했던 공룡은 2010년 6월 공식 공간을 오픈하며, 기존 질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동체로 거듭났다. 공룡들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한다. 더불어 사는 그들의 안식처에 조심스레 발을 디뎠다.



공룡은 또 다른 삶의 공간이다. 내게는 제2의 학교라고도 할 수 있다.
- 조형석(21세, 문화팀/생활도서관 매니저)



20살 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훌쩍 변해 가면서 공룡에 대한 의미도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아직은 규정되지 않은 무엇이다.
- 조영은(22세, 교육팀)



내가 어른이 되는 곳.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걸 활동으로 풀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는다. - 오재환(32세, 문화팀/카페 매니저)

다짜고짜 점심과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커피

청주시 사직동에 있는 생활교육공동체 공룡의 안식처는 2층 건물로 되어 있고, 그 1층을 '마을카페 이따'가 차지하고 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네댓 명의 사람들이 분주히 뭔가를 나르는 모습이 보였다. 밥상이 차려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고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식탁 앞에 앉았다. 인사는 수저와 계란말이에 먼저 했고,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냐는 실존적 고민이 이어진 다음에야 공룡들과 통성명을 할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자연스럽게 커피를 먹겠느냐고 물어 왔다. 커피가 나오길 기다리면서 카페를 둘러봤다. 우선, 메뉴판에 적힌 비상식적인 가격에 놀랐다. 핸드드립 커피가 2,000원! 커피숍 구석구석에 커피와 관련된 기계가 없다는 점에 한 번 더 놀랐다. 혼한 에스프레소 머신도, 전동 그라인더도 없었다. 심지어 로스팅 기계도 시중에서 볼 수 없는 모양새라 또 한 번 사람을 놀랜다. 알고 보니 다시마나 멸치를 넣고 국물을 우리는 데 쓰는 스테인리스 통을 재활용해 직접 만든 거라고. 반침대 아래에 휴대용 버너를 놓고 그 화력으로 스테인리스 통에 든 원두를 볶는다. 이런 로스팅 기계를 쓰는 바리스타가 되려면, 적어도 뜨거운 가마 앞에서 도자기를 굽는 장인의 인내와 끈기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마을카페 이따는 기계의 생산력을 밀어내고 인간의 노동력만으로 만든 커피를 내놓는다. 프렌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비롯해 그 혼한 카페들이 커피를 화폐와 교환하기 위해 각종 커피 머신을 빠르게 돌리는 데 열을 올린다면, 이따에서는 커피를 내리는 데 들어가는 노동력의 사용가치를 복권하기 위해 느리더라도 손노동을 마다 않는다. 경경거리며 수동 그라인더를 돌리고 있는 카페 매니저 오재환 씨에게 물었다. 대체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그러게요. 참 쉽게도 할 수 있는 거를. 근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일 수가 없고, 또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머신 하나에 몇 백만 원 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팔려면 장사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고. 애초에 '팔'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따의 운영 방식만 봐도 공룡들의 일상이 보인다. 그들은 최대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었다. 재환 씨는 말한다. "커피를 판다고 하면 뭔가 전문적으로 이것저것 갖춰야 할 것 같은데, 저희는 별거 없어요. 뭘 하려고 하면 돈 내서 사 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죠. 카페 인테리어도 그랬고." 공룡이 만들어 나가는 생활 공간 곳곳에 사람의 손때가 묻어 있다. 간판부터 의자, 테이블, 메뉴판, 카페 앞 화분까지. 모두 공룡들의 손을 거쳐 생명력을 부여 받은 존재들이다. 이따에는 사람과 커피만 있는 게 아니다. 이곳은 살아 있는 인간의 노동이 죽어 있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공간이다.

공부방 인연이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공룡들은 자연스럽게 모였다. 누군가의 설득에 이끌려 들어온 사람은 없다. 박영길, 이혜린, 전종민이 활동하던 공부방에 드나들던 민보선, 조영은, 조형석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공룡으로 이어졌다. 친구처럼 드나들다 공룡에 합류한 경우도 있다. 김설해 씨는 권우정 감독의 <땅의 여자> 제작에 참여한 후 2010년 3월 잠깐 쉬러 왔다가 그냥 눌러앉아 버렸다. 카페 이따의 운영을 맡은 오재환 씨는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에서 일하다 공룡의 이혜린 씨와 결혼하면서 아예 청주로 내려와 신선살림을 차렸다. 생활공동체에서 가족공동체를 실현한 드른 경우다.

20대 친구들은 화분에 물을 주듯 자기 꿈을 키워 나가고 있다. 공룡의 막내인 생활도서관 매니저 조형석 씨는 한국어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다. 책에 관심이 많아 도서관 사서가 꿈이던 그는 공룡에 들어와 실제로 도서관을 운영하며 꿈에 한발 더 다가섰다. 그는 중 2 때부터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했던 인연으로 대학 진학 후 본격적으로 공룡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땀가 박영길 선생님이 인문학 강의를 해 주셨는데, 그때 한 수업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생활도서관에서 진행되었던 스터디로는 예술사 공부나 들뢰즈 읽기 등이 있으며, 앞으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녹색평론>과 같은 저널 읽기도 할 예정이라 한다.

교육팀에서 미디어 공동체 교육을 비롯한 공룡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영은 씨는 공룡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자신에게 두근거림을 준다고 말했다. 그 역시 공부방 인연으로 공룡이 만들어질 때부터 일손을 거들었다. “전 고등학교 생활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사람보다 제도가 먼저인 상황에서 압박을 많이 받았죠. 그러던 차에 공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함께했어요. 공룡에서 다르게 삶을 구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척 놀라웠고, 같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공룡에서 배운 것이 뭐냐는 질문에 그는 함께 일하는 법을 첫째로 꼽는다. “혼자 열심히 땀 흘리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었거든요. 활동하면서 남들과 같이 일하는 것, 남들과 같이 문제를 풀어 가는 걸 배웠어요.” 공룡에서 삶의 해갈을 느끼던 아이가 이제는 공룡에 필요한 일을 고민하는 성인으로 성장했다.



공룡은 그냥 공룡인데! 내겐 텃밭 포인트가 되어 준 곳이다.
그래도 공룡은 공룡이다. - 민보선(22세, 작업팀)

땅을 보며 걷던 아이가 하늘을 보기까지

작업팀의 민보선 씨는 작업팀장 정종민 씨가 군 복무로 자리를 비운 사이 농사, 공사, 목공 등 작업과 관련된 모든 일을 이끌고 있다. 그는 ‘민 선생’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동네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컴퓨터 분해 조립 및 간단한 조작법을 가르친 ‘슬기들 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얻은 별명이다. 농사 이야기를 물으니 손맛 본 낫시꾼처럼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는다. 공동체 자력으로 돈 벌 길을 모색하던 중 시작한 농사일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 고구마와 옥수수가 주요 작물인데, 올해는 옥수수 이모작에 도전했고 콩도 새로 심었다. 수확한 작물은 지인들과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한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갓 수확한 농작물을 번잡한 유통 단계 없이 거래할 수 있어 신선이 된다고 한다.

어떻게 공룡에 들어왔는지 물으니 술 때문이라고 너스레를 떠난다. 술 자리에서 “나 데려다 일만 부려 먹고는 왜 같이하자는 이야기를 안 하나?”며 투정 반 농담 반 건넨 말이 씨가 됐다. 그런데 속사정이 더 있었다. “공룡에 들어오기 전에 집에 혼자 있는 걸 좋아했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마자 입학식부터 안 갔어요. 주변 얘기 들어 보면 그때는 매일 땅만 보고 사람들 눈도 잘 안 마주치고 그랬나 봐요. 공룡 들어오고 나서는 사람들이 너 달라졌다고, 지금은 앞을 보고 걷는 것 같다고 말해요.” 웃으며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그에게 공룡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마무리되는 곳이었다. “공룡이 어떤 활동을 하거나 공룡이 어떤 단체거나 어떤 생각이 있거나 그런 거 없이, 몇 년 동안 수업을 같이했던 사람들이 좋아서 들어온 거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엄청 추운 공간! 뜨거운 여름에 하루라도 물을 주지 않으면 폭삭 시들어 버리는 화분처럼, 긴장감이 있는 곳.
- 김설해(28세, 교육팀)

표현하고 소통하는 미디어

노리울지역이동센터의 공동체 미디어 교육에서 첫 발을 댔 공룡에게 미디어 교육은 여전한 큰 축이다. 여덟 명의 구성원 중 교육팀 이혜린, 김설해, 조영은을 중심으로 미디어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공룡이 생각하는 미디어 교육/활동은 ‘표현’과 ‘소통’을 기본으로 한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이유로 발언권을 지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발언의 도구와 공간을 제공하여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소통을 요구하고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사직동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활동은 계획만큼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느리더라도 꾸준히 가고자 한다. 2011년엔 이웃 어머님이 디지털 카메라 활용법을 배우고 싶다고 제안하셔서 ‘어머님 디지털 카메라 활용 교육’을 열었다. 마을 안에서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공룡과 이웃들이 기술과 정보뿐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란단다. 올 하반기엔 초등학교 학생 대상의 미디어 교육을 개설할 예정이다.

청주 지역 단체 및 개인과의 연대 교육 활동도 중요하다.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의제를 지닌 공동체/집단의 구성원들이 미디어를 통해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급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진행한 미디어 교육에선 복수노조 문제와 유성기업 투쟁을 다룬 영상을 제작했다. 이런 교육은 문제를 일상적으로 포착한다는 기능적 의미를 넘어, 당사자의 발언이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의미가 선행한다.



나에게 공룡은 진행형이다.
- 이혜린(38세, 교육팀)

연대하고 운동하는 카메라

공룡의 카메라는 한국 사회 곳곳의 현실에 목소리를 보태고 우리가 사는 지역의 목소리를 담는다. 지역을 고민하기 위해선 사회 전반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시작한 용산 철거민 투쟁 지지 활동도 이러한 고민이 바탕이 됐다. 용산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동참을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도시 재개발 광풍에 휩싸여 있는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도 함을 알리고자 했다. 이런 활동은 도시 재개발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토론, 용산과 재개발에 대한 청주 시민 인터뷰, 용산 철거민 투쟁 지지 라디오 활동으로 이어졌다. 지난 1년간 공룡의 미디어 활동에서 특히 주력했던 이야기는 ‘노동’이다. 개인과 공동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는 복잡하지만 그중에서도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불안정 노동의 문제에 주목했다. 민간 위탁업체 청소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인 <보이지 않는 사람들 - 청소 노동자 정현자 씨 이야기>(2012), 학교와 용역업체를 상대로 10여 년을 싸워 온 청주대 청소 노동자들을 담은 <청주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의 여름>(2012), 유성기업의 공격적 직장 폐쇄와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록한 <유성기업, 폭력을 말하다>(2012) 등을 제작했다. 공룡이 제작한 영상은 팟캐스트 ‘복지갈구 화적단’(www.media-net.kr/hwajuck)을 통해 액세스하고 있다. 얼마 전엔 웃지 못할 우스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유성기업의 ‘악행’들을 담은 <타겟, 유성지회 두 번째 봄>(2013)이 지난 5월, 지역 케이블 방송사인 현대HCN충북방송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방송을 신청했으나 한 달 후 방송 불가 통보를 받았다. 노동자가 만든 노동조합의 이야기는 ‘주관적’이기 때문이라 했다. 시민의 공론장이 돼야 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 지역의 이슈를 담은 영상을 외면하고 소수자의 목소리를 배제하며, 본래의 취지를 저버리고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현재 공룡과 급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현대HCN충북방송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영상이 방송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공룡은 실험실이다. 이것저것 많이 실험할 수 있다는 면에서.

- 박영길(43세, 작업팀/요리 담당)



- 정종민(30세, 작업팀/군 복무 중)

공룡의 가능한 변화들

공룡의 바람은 미디어가 아닌 변화다. 공룡은 미디어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공룡에 흥미를 느끼거나 지속적인 영상 활동을 하는 것보다 자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 또 미디어 활동을 통해 지역 소식을 전달하고 어려운 현장에 카메라를 들고 가서 힘을 북돋우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당사자로서 발언하고 자기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실현하는 '도구'가 미디어인 것이다.

새로운 길을 가려는 사람들의 여정은 길고 지난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쉬이 멈출 줄 모른다. 기획력과 구성력을 보완해 제작도 더 잘하고 싶고, 교육과 제작을 매개로 사람들과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며, 눈앞에 놓인 현실의 변화 이상의 의미를 찾고 나아가는 것이 과제라는 공룡. '정체를 느끼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는' 이들은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을 꿈꾼다. 공룡의 가능한 변화들은 계속 될 것이다.

공룡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이야기가 있다. 농부가 땅을 갈고, 미디어 활동가들이 현장을 누비고, 소유하는 자들이 책을 읽고,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는 때 순간 창조적 삶의 가치가 생산된다. 그들의 손이 삶의 도구를 놓지 않는 한 삶은 계속되고 이야기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아직 쓰이지 않은 공룡의 이야기들이 더욱 궁금하다.

취재 이도훈/최민아 | 사진 이도훈/공룡

SMALL TALK 공룡 창단 멤버 박영길

“공부해서 용 되자”의 공룡이다. 공룡과 공부는 어떤 연관이 있나?

원래는 “공부해서 용 돼서 남 주자”였는데 ‘공용남’으로 짓기 애매해서 ‘공룡’이 됐다. 공룡에서 공부는 두 가지 의미다. 먼저, 공룡이 추구하는 가치인 일상성과 공동체성과 반자본주의를 공동체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일하면서 고민했던 건데, 보통 조직이 발전해도 활동가는 그 안에서 재료처럼 소비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성이 같이 가는 걸 바랐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완성하려 할 때 공동체가 지원해 주자는 거다.

공동체 운영에서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나?

운영에 많은 돈이 들진 않는다. 공룡을 기획하면서 가끔씩 의식주는 공동으로 풀어 갔으면 했다. 우선 공동 식사를 하고, 먹는 건 최대한 잘 먹자는 거다. 음식 재료는 농사도 짓고 후원도 받는다. 실제로 의식주는 돈이 많이 안 든다. 그리고 다 같이 자주 놀러 간다. 영화제나 여행을 가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온다. 물론 빠듯한 살림이지만, 교육팀이 외부 미디어 캠프를 진행하거나 작업팀에서 농사짓는 걸로 해결하려 한다. 외부 후원은 안 받고 있다. 우리랑 같이 활동하면서 자발적으로 내는 건 괜찮은데, 회원 제도를 운용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로 다른 활동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었다.

공룡이 기존 공동체 모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공룡의 핵심은 반자본주의다. 요즘 공동체나 협동조합이 수단처럼 돼 가고 있는데, 그건 위험하다고 본다. 가령 이명박 정권이 한국 사회의 문제를 공동체로 풀겠다고 말했던 거나,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의 핵심은 사회적 경제고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공동체를 수단으로 본다는 거다. 이게 잘해서 자본주의를 바꾸는 건지, 아니면 거대 재벌 기업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불만을 협동조합으로 풀어내는 건지 잘 판단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일정 정도의 소득을 얻고 그걸 바탕으로 개인적인 삶을 향유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을 누리면서 얻으려고 하는 가치나 유희들을 공동으로 풀었으면 한다.

구상하고 있는 공룡의 미래 혹은 청사진이 있다면?

모델은 없다. 공룡을 막 만들었을 때 망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공룡이 꿈꾸는 게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게 모범 답안처럼 되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하려는 다양한 교육이나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자기 삶을 완성하는 공동체 같은 걸 계속 실험해 보려 했다. 실험은 실패가 기본 아닌가. 성공하면 실험이 아니니까.

ISSUE

신나는 세상을 향한 멋진 사랑

당연한 결혼식의 한 남자, 김승환

2013년 9월, 대한민국 최초의 공개 동성 결혼식이 서울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치러졌다. 이 '당연한 결혼식'의 주인공은 영화사 청년필름 대표이기도 한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퀴어영화 전문 제작·배급사 레인보우팩토리의 대표 김승환. 9년간 사랑을 나눠 온 이들의 로맨틱한 결혼식 직전, 게이 인권 운동 단체 친구사이 사무실을 찾아 김승환 대표와 만났다. '화니'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김승환 대표는 게이 인권 활동가이자 LGBT영화제 프로그래머 겸 홍보팀장까지 다방면으로 활동 중이다. 그동안 김조광수 감독에 비해 베일에 싸여 있던 영화인 김승환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국내 유일의 퀴어영화 전문 제작·배급사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사랑은 '친구사이'에서 만나

“2005년 1월, 친구사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김승환이라는 사람을 처음 보았을 때 후광이 보이는 것 같았다.” 2012년 5월 결혼 발표 기자회견에서 남독한 김조광수 감독의 편지에 나오는 문장이다. 이 커플의 오작교(?)가 되어준 친구사이는 1993년 결성된 한국 최초의 동성애자 인권 운동 단체 ‘초동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게이 인권 운동 단체다.

“제가 친구사이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대 관계가 굳건하면서도 문화를 통해 인권 운동을 한다는 점이에요. 제일 잘 알려진 게 게이 코러스 ‘G_Voice(지보이스)’죠. G_Voice를 통해 친구사이 회원도 크게 늘었고 대중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았어요. G_Voice 1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WEEKENDS>도 올해 10월 공연까지 담아서 마무리한 뒤 내년 초 개봉 예정입니다.”

김승환 대표도 G-Voice 활동을 한 적 있느냐고 넌지시 물었더니, 노래를 못해 활동 경험은 없다며 결혼식에서 선보일 짧은 뮤지컬이 걱정이라고 웃어넘긴다. 올해 LGBT영화제 개막식에서 그토록 멋진 의상을 입고 등장했던 사람이 이렇게나 쑥스러워하다니, 다소 놀라웠다.



9월 7일 당연한 결혼식 직전 기자회견 현장. 김조광수 감독은 “제가 만약 이성애자였다면 조촐히 결혼식을 올렸겠지만, 동성 결혼 권리를 얻기 위해 이렇게 요란히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너와 나, 그리고 모두의 다양성을 위해

올해로 13회를 맞은 서울LGBT영화제는 성 소수자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담은 영화를 상영하는 축제로 2001년 퀴어문화축제와 함께 시작됐다. LGBT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를 합쳐서 부르는 단어.

“LGBT영화제는 김조광수 감독님과 함께 2011년도부터 참여했는데, 애초에는 홍보만 도우려다가 어찌다 보니 국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섹션의 프로그래머까지 맡게 됐어요.” 비슷한 영화제 스태프로서 영화제가 임박해 오면 그야말로 업무가 폭발하는 것을 보아 왔기에 홍보와 프로그래머를 동시에 하며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해 물어보았다. “사실 영화제의 꽃은 프로그램이죠. 아무리 좋은 협찬품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도 영화가 재미없으면 다 소용없더라고요. 전 프로그램을 고를 때 장르를 떠나 관객들이 보고 나서 성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는 영화들을 선호해요.”

올해 LGBT영화제 프로그램 중 특히 눈길을 끈 ‘장국영 추모 특별전’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자, 섭외 불발로 상영하지 못한 <패왕별희>와 <해피투게더>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장국영이 출연한 대표적인 퀴어 영화라 꼭 상영하고 싶었지만, 마지막 협상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김승환 대표는 앞으로 틸다 스윈튼이나 줄리안 무어처럼 여배우 특별전인 동시에 퀴어영화 기획전이 되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비쳤다.

영화를 통해 대중의 인식을 바꾼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퀴어영화를 전문적으로 제작, 수입, 배급하는 영화사인 레인보우팩토리는 영화사 청년필름 대표인 김조광수 감독의 제안으로 2012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김조광수 감독의 첫 번째 장편영화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을 공동 제공했고, 베를린국제영화제 테디상 수상작인 <라잇 온 미>를 수입 개봉했다.

“영화제용 영화와 극장용 영화를 고르는 기준은 조금 달라요. <라잇 온 미>의 경우는 인권 코드가 없고 그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인데, 성 소수자의 사랑이 절대 특별한 게 아닌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이란 걸 알려 주고 싶었어요.”

올해는 지난 LGBT영화제에 소개되어 화제를 모은 <로빈슨 주교의 두 가지 사랑>을 수입해 이미 공동체 상영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세계 최초로 커밍아웃을 한 뒤 미국 성교회 주교가 된 진로빈슨 주교의 전기 다큐멘터리인데, 11월 극장 개봉을 준비 중이에요. 김조광수 감독님의 옴니버스 영화도 내년 즈음 개봉 예정이구요. 영화는 문화적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퀴어영화들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이 조금씩 변해 갈 거라고 믿어요.”

우린 이 결혼 찬성일세

그 어떤 결혼식이 이렇게 멋지게 기획될 수 있을까. 청년필름 대표 김조광수 감독의 영화 마케팅 노하우가 더해진 ‘당연한 결혼식’은 분명 세기의 결혼식이 될 것이다. “감독님은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하는 공개 결혼식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50살 전에는 꼭 하고 싶다고.(웃음) 감독님과 달리 저는 앞에 잘 나서는 타입이 아니었지만, 2011년부터는 저도 공개 결혼식에 대해 공감되더라고요. 사실 2011년에 커밍아웃하기 전까지는 게이로서의 삶과 사회의 시선 사이에서 절충하여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



친구사이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 하비 밀크, 데릭 저먼, 프레디 머큐리,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성애 인권 활동가, 예술인들의 사진과 명언들이 액자에 담겨 있다.

치기 시작했어요. 파트너인 감독님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삶을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또 무엇보다 감독님과 함께하는 삶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많은 장소 중 왜 청계천 광통교 앞을 선택했느냐는 질문에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를 택했다고 한다. 원래는 시청 앞 광장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었지만, 허가제인 광장은 시에서 많이 부담스러워 해서 다른 장소를 찾았다는 대답이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포비아 단체의 공격에 대비하여 경찰에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집회 신고도 했다고.

“저희 결혼식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를 통해 조금 더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로 변화가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결혼식 이틀 뒤에는 서대문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에요. 물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한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법정 투쟁과 헌법 소원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당연한 결혼식의 준비부터 혼인신고까지 모두 촬영 중이며, 내년에 다큐멘터리로도 볼 수 있다고 하니 함께 기대해 보자.

차별 없이 모두가 신나게 살 수 있는 세상

이번 당연한 결혼식에서 모인 축의금은 성 소수자를 위한 LGBT센터 건립과 인권재단 설립에 사용된다. ‘신나는센터’라는 이름을 가질 LGBT센터의 경우 서울 지역에서도 공동체가 살아 있는 위치에 건립하고 싶다는 바람이다.

“설립 완료 예정은 2017년인데,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죠. 사실 가장 예민한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임시센터와 더불어 심리 상담을 연계하여 진행하려 해요.” 신나는센터에는 청소년 센터 외에도 LGBT 개인을 넘어 가족들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 LGBT 관련 아트센터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문화된 LGBT 인력을 구성하여 부모(이성애자 커플)를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러운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등, LGBT 인권 운동의 큰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성 소수자 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마련해 주는 대기업이나 기관이 없어 더 힘들어요. 국가에서도 해 주지 않고, 그런 점에서 LGBT센터 재단 설립을 통해서 다른 센터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옥한 토양을 마련하는 게 제 목표예요.”

취재 김지은 | 사진 유수진/다니엘(J.secret)

Q&A

삶의 어떤 순간에도 반짝이는 그녀의 유머

[해피투게더 독립영화] 한지혜 감독전

2013. 8. 31 at 한국영상자료원

[해피투게더 독립영화]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독립영화 상영 환경 조성을 위해 200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상설 프로그램이다. 조영각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의 프로그래밍과 진행으로 한 달에 한 번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2013년 8월에는 독특한 유머 감각으로 주목받아 온 한지혜 감독의 단편들을 소개했다. 관객을 울리는 것보다 웃기는 게 더 어렵다던데 한지혜 감독은 그만의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장난기 어린 표정과 말투에서 앞으로 더 만들어갈 그녀의 세계가 궁금해졌다.



FILMS

기차를 세워주세요 (2008년, 23분) / 이하 〈기차〉

국적도 언어도 성정체성도 다른 4명의 젊은이들이 기차에 오른다. 그들은 산 채로 이 기차에서 나가고 싶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누가 공정화를 죽였나? (2012년, 24분) / 이하 〈공정화〉

스물아홉 살 공정화가 죽었다. 그녀는 과연 누가 죽였을까?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녀의 마지막을 돌아본다.

영웅의 탄생 (2012년, 9분) / 이하 〈영웅〉

건물 옥상에서 숨 막히는 인질극이 벌어진다. 소동을 해결하려 출동한 경찰과 구경꾼들로 혼잡한 옥상에 동물원에서 탈출한 살인토끼가 나타난다.

해독제는 없다 (2013년, 23분) / 이하 〈해독제〉

내일, 그녀가 결혼을 한다. 윤호는 핏집에 해독제가 없다는 항우울제 한 통을 삼키고 오열한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전화벨이 울린다.

조영각_간단한 작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25살에 〈기차〉를, 29살에 〈공정화〉를 찍었는데, 연작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제 이야기가 녹아들어 있죠. 제 인생에서 ‘공정화 시기’라 부르는 그 시기를 겪으면서 느꼈던 악몽 같은 젊음, 동시대를 살고 있는 다르지만 같은 젊은이들에 대해서 유쾌하게 그려 보고 싶었어요. 34살에도 동시대의 이야기를 연작처럼 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웅〉은 한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예산으로, 죽자고 웃겨 보고 싶어서 만든 영화예요. 보신 분들은 〈몬티 파이튼의 성배〉(영국의 전설적인 코미디 그룹 몬티 파이튼의 1975년작으로, 살인토끼가 등장한다.)가 생각나실 텐데, 토끼가 물어뜯는 장면을 열심히 연구해서 짧은 소품처럼 만들었어요. 〈해독제〉는 재밌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건데, 고전적인 플롯으로 마지막에 아이러니와 블랙 코미디가 있고 결국 사랑 이야기예요. 상상력을 무한대로 펼쳐 볼 수 있는 그런 꿈과 환상, 환각이 뒤섞여 있는 감각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관객_작품마다 어떤 모티브가 있었나요?

〈해독제〉 같은 경우는 항우울제 의약품 설명서에 ‘해독제가 없다’는 문구가 강하게 다가왔었고, 〈공정화〉는 2년 동안 공정화처럼 살았던 하나하나의 파편들이 이야기가 됐어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배설하듯이 썼죠. 〈기차〉는 〈노란 화살〉이란 러시아 소설에서 모티브를 얻었어요. 사람들이 내릴 수 없는 열차를 타고 달린다는 내용인데, 그리고 보니 정말 〈설국열차〉 같네요. 기차 이름이 ‘노란 화살’이기도 하고, 햇빛의 비유이기도 해요. 더러운 테이블에 주인공이 앉아 있는데, 빛이 와서 닦아요. 여기 있는 빛은 더러운 식탁보에 떨어지기 위해서 태양에서부터 먼 우주 공간을 지나 여기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와 닿았어요.

조영각_꿈도 있고 재능도 있지만 잘 안 풀리는 캐릭터들이 주로 나오는데.

루저에 대해 써야겠다고 작정한 건 아닌데, 쓰다 보니까 루저들에 애착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제저와 제 주변 이야기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쓰는 것도 그런 맥락이 있네요. 이걸 벗어나야 되나 싶기도 한데, 압문 그렇습니다.(웃음)

조영각_〈공정화〉에선 인터뷰하는 주체가 누군지 끝까지 안 나오죠.

그게 정말 너무나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었어요. 마지막에 공정화가 “답이 없다, 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몰랐어요. 떠나도 답이 없고, 제 인생에 답이 없는 것처럼요. 게다가 〈공정화〉는 찍으면서 정말 애로 사항이 많았던 영화였어요. 도중에 교통사고 나서 물어준 돈만 천만 원 정도 되고, 아이폰하고 DV로 촬영해서 꾸역꾸역 붙여 만든 영화거든요. 여태까지 영화 중에 가장 힘든 영화였어요.

조영각_영화를 보면 여행을 좋아하고 많이 한 것 같아요, 다양한 국적의 인물들도 나오고.

20대 초반에는 돈만 벌면 나가고, 여행 가는 게 좋았어요. 팔레스타인에 한 달 정도 평화단체 프로그램으로 갔는데 그때 느낀 게 많았어요. 〈기차〉의 지미 세르는 가장 친한 친구인데, 네 편 다 그 친구가 음악을 했어요. 캐릭터가 영화와 비슷해요. 영화에 나오는 글도 실제로 그 친구가 한국어 수업 시간에 쓴 여행에 대한 글인데, 너무 미친 것 같은 거예요. 이 이야기 꼭 써야겠다고 생각했었죠.

관객_외국인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섭외하시는지 궁금해요.

외국어학당 앞에서 기다리다가 괜찮은 친구가 있으면 말을 걸어서 캐스팅했어요. 개네들도 심심하기 때문에 재미있겠다 싶으면 같이해 주더라고요.

조영각_영화에 정말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모으나요?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 에밀 쿠스트리차예요. 그 산만함과 소란스러움을 볼 때 희열을 느껴요. 〈영웅〉의 경우는 거쳐 간 사람만 해도 백 명이 넘어요. 3일 동안 촬영을 했는데 일단 와라 해서 30명은 기본적으로 깔았거든요. 저는 영화 촬영장에 아는 사람들 다 불러요. 다음엔 돈을 주고 사람들을 쓰고 싶어요. 제가 쓸 수 있는 인맥은 거의 다 써서. 병원에서 손잡는 남자애들 둘도 목욕하러 가는 애들 오라고 해서 찍은 거였어요.

조영각_비전문 배우 쓸 때는 연기 연출을 어떻게 하나요?

제가 그런 걸 좀 잘해요.(웃음) 절반 이상이 비전문 배우인데, 지나가는 사람들도 쓰고요. 정확한 디렉션을 주면 되는 것 같아요.

관객_〈공정화〉에서 할아버지의 노래 부르는 장면이 좋았는데, 어떻게 담았어요?

〈공정화〉는 모든 게 우연의 연속이었어요. 그 장면도 예정됐던 게 아니고, 전북 부안에서 길가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들을 보고 노래 잘하시는 분이 계시냐고 물어봐서 5곡 정도 담았어요. 가사가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좋으셨다니 좋네요.

관객_영화들이 리듬감 있게 편집되어 있는데 사전에 계획을 많이 하시는지?

계산은 굉장히 많이 하면서 찍죠. 〈해독제〉는 600컷인데 많죠. 200컷으로도 장편영화 찍으니까. 일단 굉장히 많이 찍고, 편집도 오래 해요. 근데 모든 감독들이 집착하지 않아요. 어쨌든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편집합니다.

조영각_앞으로 어떤 영화를 만드실 건지?

요즘 장편을 쓰고 있는데 정체성 부분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가을까지는 계속 고민해서 좋은 영화를 찍고 싶고요. 저는 블록버스터, 액션영화도 하고 싶거든요. 스펙트럼이 넓은 감독이 되겠습니다.

정리 신미혜 | 사진 김지은

다은의 남다른 시선

김곡, 김선(곡사)의 〈방독피〉

독가스 처럼 스며나오는 모호함의 정치

영화의 도입부, 어린 소녀가 방문을 여니 방독면을 쓴 누군가가 피 묻은 칼을 들고 서 있고, 바닥엔 한 여자가 쓰러져 있다. 말없이 그 장면을 쳐다 보던 소녀가 방문을 닫고 나와 뒤를 돌아보자, 방 안에서 봤던 장면이 소녀의 눈앞에 다시 펼쳐진다. 끔찍하게 반복되는 이 장면은 소녀를 따라다니는 환영인가? 이 잔인한 이미지를 무심한 시선으로 응시하는 소녀는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아니, 영화는 어린 소녀로 하여금 무자비한 살인마와 무력한 죽음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영화 밖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요청하는 것일까? 이 이상한 도입부에는 이후 부조리한 우화처럼 내달려 가는 이야기들에 섞이지 않는 면모가 있다. 그리고 괴이한 캐릭터들로 영화가 진행되는 중에도 종종 돌아와 생각을 멈추게 한다. 연쇄 살인마의 정체를 끝내 명시하지 않는 본론의 모호함과 등장인물들의 불안정하고 흥분된 상태와 비교했을 때, 이 도입부는 어딘지 직설적이고 냉담하다. 그것은 방문을 닫아도 방밖에서 똑같이 시작되는 악몽, 무엇이 진짜 사실인지, 무엇이 실체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의 징후, 환영이 도처에 잠복한 출구 없는 세계의 압축된 형상인가.

각자의 세계, 정확히 말하면 망상에 사로잡힌 네 명의 괴물들이 여기 있다. 경찰청장 아버지에게 강간당했다고 믿으며 연쇄 살인범의 재판을 기다리는 늑대소녀, 보수당 출신의 서울시장 후보이자 살해 협박에 두려워하는 주상근, 자신의 진짜 정체성이 연쇄 살인범을 쫓는 슈퍼맨이라 믿는 주차요원 보식,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을 연쇄 살인범에게 잃었다고 여기며 자신의 살해 행위를 망각한 듯 보이는 미군 패트릭. 만약 이들 캐릭터가 설명되는 표면적인 방식을 끝이곧대로 믿는다면, 늑대소녀는 프로이트의 ‘늑대인간’의 예시로, 주상근은 한국 보수당의 표상으로, 보식은 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소시민으로, 패트릭은 주한 미군, 나아가 미국이란 체제의 모순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각 캐릭터를 추상화시켜 〈방독피〉의 메시지를 읽어 내는 식으로 말이다. 이 영화의 면면이 단순한 상징에 불과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영화를 봤을

것이다. 그렇게 보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캐릭터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사, 행동 등은 얼마든지 근 5년간 대한민국을 휩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으로 소급된다.

하지만! 무언가를 겨냥한 듯한 인물들의 퍼포먼스나 누군가를 환기하는 듯한 캐릭터 설정, 혹은 한 솥 내에서 보이는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현실 정치의 상징성을 영화에 덧씌우려 하는 건 곡사의 영화를 가장 따분하게 보는 길이다. 곡사의 영화는 언제나 현실 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만, 현실 정치에 대한 명징한 상징이 되길 희망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바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내용의 상징을 읽는 대신, 그 상징들이 서로 부딪치며 어떤 잉여와 파편들과 ‘정치’를 생성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 그때 중요한 건 한 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솥들의 연쇄, 충돌, 간극, 서로에 대한 작용이 상징과 의미와 메시지를 부수고 질문들을 기입하는 과정이다. 더욱이 곡사의 인물들(의 내용으로)로부터 고정된 정체성과 신념을 찾는 일은 대개 의미가 없거나 어리석은 시도가 될 확률이 크다. 곡사의 인물들은 이 짐승 같은 세계를 건너 내는 ‘바리오네트’들이며, 껍데기로 건디는 가면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가면의 정체가 아니라, 가면들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왜곡하는 방식, 그 왜곡된 가면들이 서로를 비추는 방식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방독피〉의 흥미로움은 그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 정치를 직접적으로 환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안에 그것의 징후를 기괴하게 겹쳐 두면서 현실 정치라는 사건(선거, 주한 미군)과 그것의 징후로서의 정신병(늑대소녀와 슈퍼맨과 동일시하는 청년)을 오가며 그 경계를 비틀고 휘젓는 데 있다. 양쪽의 가장 상투적인 유형들을 마치 새롭다는 듯 시치미 뚫 떼고 끌고 와 영화적으로 유희하는데, 그 과정에서 명징하다고 믿어졌던 영역들은 균열되며 그 틈으로 모호한 질문들이 독가스처럼 스밀스밀 기어 나온다. 모든 확신은 불확신과 만나고 정체성은 오인과 만난다. 이것은 〈방독피〉가 자신만의 영화적 활력을 지속하며 자기만의 정치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영화의 엔딩에 대해 한마디 덧붙이려 한다. 독가스 자욱한 어두운 도시가 아니라 고요한 버스안의 소녀에게 돌아온 영화는 도입부에서만 큼 무심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소녀와 소녀를 돌아보는 방독면을 쓴 누군가를 보여 준다. 누군가 버스 하차 벨을 누르지만, 버스가 지나간 자리에는 누구도 내리지 않고, 그 불길함 속에서 영화는 끝난다. 어쩐지 도입부와 대응하는 듯한 이 엔딩을 말하기 위해서는 따로 긴 지면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 엔딩을 보고 나서 문득 든 생각이 있다. 〈방독피〉에서 정작 중요한 건 연쇄 살인범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이 어린 소녀가 ‘무엇’인지를 묻는 일이 아니었을까.

남다른(영화평론가)

성찬의 영화상찬

김응수의 〈물의 기원〉과 현대사 3부작

경계를 행하는 영화

〈물의 기원〉(2009)은 김응수의 여섯 번째 영화다. 〈천상고원〉(2006) 이후, 〈과거는 낯선 나라다〉(2007)와 〈아버지 없는 삶〉(2012) 사이의 영화다. ‘마음을 비우고’ 독립적인 방식으로(또는 사적이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의 세 편의 영화에는, 그 다양한 만듦새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관된 경향이 있다. 주제적으로 보자면, 세 편의 영화는 모두 현대사의 어떤 순간들과 관련이 있다. 말하자면 세 영화는 ‘현대사 3부작’으로 묶어도 무리가 없을 법한 작품들인데, 그것은 작품들이 만들어진 시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2007년에서 2012년, 즉 노무현 체제에서 이명박 체제로의 전환기, 또는 정치적 퇴행의 시대). 형식적으로 보자면 세 편의 영화는 모두 김응수의 방식으로 ‘에세이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실험의 산물이다. 유운성의 지적처럼, 〈천상고원〉 이후 김응수의 영화에는 ‘여행의 모티브’가 영화를 구성하는 틀로 자리 잡고 있다(KMDb 독립영화 초이스). 그러니까 그가 추구하고 있는 에세이 영화는 일종의 ‘여행기(旅行記)’인 셈인데, 물론 그것은 공간적인 동시에 시간적인 여행이다. 정치적 퇴행의 시대에, 세 편의 영화는 ‘세상을 지배하는 아버지의 신화’에 저항하면서 그것을 해체하고자 하는,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영화적인 모험을 해 온 셈이다. 그것은 ‘신화(myth)’ 해체 전략으로서의 ‘전설(legend) 만들기’라 불려도 좋을 만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물론 이때 ‘전설’이란 과거를 회고하거나 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대사에 대한 주류적인 기억에 포획되지 않는 소수적인 기억(또는 대항-기억)을 현재로 불러오기 위한 것이다. 아버지의 편집증에 맞서는 그 작업은, 당연히 파편적이고 분열적이다.

김응수의 ‘에세이 영화’는 크게 두 가지의 요소로 구성된다. 그 하나는 시각적인 요소로서, 인물의 얼굴과 풍경의 ‘중성화’이다. 다른 하나는 청각적(또는 언어적) 요소로서, 다양한 문학적 텍스트(중주의 비선형에 대한 지역의 전설, 서구 근현대 시인들의 시편들,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의 〈요코 이야기〉, 그리고 니체)의 ‘자유간접화법’적 발화다. 〈과거는 낯선 나라

다〉에서 김응수는 인터뷰어로서, 인터뷰이인 인물들이 과거의 외상적인 순간에 대한 감상적이고 회고적인 기억(또는 낯익은 또 하나의 신화)에 빠져드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방식으로, 질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특이한 어조와 어투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한다. 〈물의 기원〉 1부(또는 프롤로그)에서 두 배우(김태훈, 채화숙)는 4년 전의 외상적 순간과 현재에 대한 소소하고 파편적인 기억들에 대한 ‘내적 독백’의 형식으로 김응수의 그 언어를 발화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파편적이고 분열적인 발화의 상관물로서 ‘배우들의 무표정한 얼굴’을 연출한다. 이때 ‘무표정’이란 단순히 ‘표정 없음’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가능한 표정의 잠재성을 품고 있는 ‘표정의 영도’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모조현의 얼굴’이자 브레송의 ‘모텔의 얼굴’의 다른 판본이다. 〈아버지 없는 삶〉에서 김응수는 정말 ‘운 좋게’ 얻게 된 마사코의 ‘중립적인 얼굴’을 상관물로 해서, 마음껏 자신의 자유간접적 발화를 수행한다. 김응수의 에세이 영화에서 몽타주는, 단지 시각적 이미지의 차원에서 솟과 솟 사이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시각적 이미지(얼굴과 풍경)와 청각적 사운드(다양한 음향, 음악, 소리) 사이에서 정교하게 이루어진다.

〈물의 기원〉에서 ‘물’과 ‘기원’은 각각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그 두 가지 의미 사이에서의 긴장과 충돌이 영화의 리듬을 이끌어 간다. 그 물은 전두환 시절 완공된 충주댐으로 형성된(이후 관광 명소가 된) 충주호의 물이기도 하고, 그 물의 진짜 기원인(지배자의 시선으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장소의 비밀스러운 물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그것은 근대의 개발 신화의 수원지로서의 물이기도 하고, 그 신화로 포획되지 않는 전설의 물이기도 하다. 김응수는 세 편의 에세이 영화를 통해 여러 관습적인 경계를 횡단하는 여행을 하고 있다. 그것은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라는 영화 내적인 경계 횡단이기도 하고, 문학과 영화라는 영화 외적인 경계 횡단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 여행 속에서, 현재의 한국영화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영화적 진경들과 만날 수 있다.

p.s. 뜬금없이 이 자리에서 김응수의 〈물의 기원〉에 대해 쓰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그 영화적 성취에 비해서 지금까지 이 영화에 대한 글이 너무 없었다는 것이다.(서울독립영화제 리뷰에 올라와 있는 이도훈의 글과 ‘씨네21’에 올라와 있는 이영진의 글이 내가 확인할 수 있었던 전부다.) 둘째 이유는, 최근에 김응수의 영화 다섯 편이 인디플러그에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변성찬(영화평론가)

독립영화, 사회적 경제에 접근하자!

한국영화에 있어 시장 경제의 실패는 분명해졌다. 2012년 이래 각종 영화산업 통계는 성장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흥한 이야기가 난무하다. 국산 영화 시장은 상위 4위가 90%를 점유하는 독점적 시장이 돼 버렸고, 전체 영화 시장도 한국 메이저 4사와 할리우드 직배사 4사만의 것이 돼 버렸다. 이런 시장 질서는 3개의 상영 사업자가 90%를 점유하는 과점 체계에 기반하고 있어 공정 시장에 대한 기대는 요원해 보인다. 상황이 이러하니 성장의 열매는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 또한 높은 진입 장벽 때문에 마이너 배급사나 독립영화 배급사들의 영화는 시장의 구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한국영화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시장 경제만 실패한 것이 아니다. 국가의 공공 경제 역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이 제대로 재분배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반복되고 있다. 이밖에 영화 향유권의 차별 등 여러 문제가 존재하지만, 공공 경제는 이를 제대로 제어하거나 보완하지 못했다. 시장 경제가 실패하고 공공 경제가 제 기능을 못하는 지금, 독립영화 진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시장 경제가 공정해지고 공공 경제가 제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시장과 국가가 책임지지 못해 온 영역을 자발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다. 한국 독립영화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바로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 경제의 이윤 극대화 논리를 벗어나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공동체가 연대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다. 사회적 경제는 인간의 상호성에 주목하며, 인간 간 상호 작용은 공정성에 기반한 신뢰와 협동이며, 연대가 목표다. 최근 많이 언급되는 협동조합은 이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형태다. 그렇다면 독립영화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접근은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회적 경제는 인간의 상호성, 더 쉽게 말하면 '협동'에 기반한다.

한국 독립영화에게도 '협동'은 익숙하다. 과거 한국 독립영화는 협동의 영화였다. 90년대 대표적 독립영화 단체인 푸른영상, 서울영상집단, 영화제작소 청년 등은 모두 제작자들의 공동체였다. 이들은 새로운 세대의 영화를 만들거나 기존의 미디어가 다루지 않는 소재의 영화들을 만들기 위해 협동했다. 독립영화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접근은 바로 이 협동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된다. 지난 협동의 역사가 영화 제작을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제작뿐 아니라 유통의 과정까지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독립영화 제작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보다 많은 관객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필요와 염원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합하여, 제작과 유통 사업체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면 그것이 바로 협동조합이고 사회적 경제의 실현이다. 1960년대 초, 미국의 '진짜' 독립영화인들은 제작한 영화를 공동으로 배급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조직했다. 바로 영화제작자협동조합(The Film-Makers' Cooperative)이다. 이 협동조합엔 900명에 가까운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고, 5천 편이 넘는 영화가 배급되고 있다. 이외에 캐년시네마(Canyon Cinema)도 협동조합으로 설립되어 3천5백 편 이상의 독립영화를 배급하고 있다. 미국 독립영화 배급의 역사는 협동과 협동조합의 역사이기도 하다. 협동조합 방식은 한국 독립영화에서도 이미 시도되어 왔다. 1991년 결성된 푸른영상은 협동조합이다. 푸른영상엔 '푸른회원'이라는 회원 제도가 있다. 1년에 10만 원의 회비를 내면 회원이 될 수 있는데, 회원은 푸른영상의 모든 작품을 받아볼 수 있는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최근 협동조합 방식으로 보자면 생산자 조합원과 소비자 조합원 등이 함께하는 '다중 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인 셈이다. 2000년대 이래 한국 독립영화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 등으로 인해 집단 제작이 사라지고 개인 제작으로 변해 왔다. 비슷한 시기 개인 제작자 간 경쟁도 격화됐다. 제작 지원도 영화제에서의 상영도 영화의 개봉도 모두 경쟁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독립영화의 협동은 퇴색하고 있다. 협동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 지금 독립영화에게 필요한 과제 중 하나다.

짧은 여행의 기억을 뒤돌아보며

소설을 읽고 있어요. 남자가 아시아 어느 나라의 장례 행렬을 보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그곳이 어디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인도'라고 제멋대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시신을 강가에서 화장한 뒤 유골을 강물에 버린다는 문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화장할 때마져 태우기에 충분한 양의 나무를 사지 못해, 타다 만 시신을 그대로 강물에 떠내려 보내기도 한다고요. 그 광경을 보며 삶과 죽음의 경계, 그리고 살아 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는 지인의 이야기에 저도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그런데, 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인도에 다녀왔기 때문에 소설의 첫 장면을 읽고 그곳을 떠올린 것일 수도 있어요. 이국의 풍경과 그곳의 사람들을 묘사하는 문장에 제 가장 가까운 여행 경험이 겹쳐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현대, 소설가분께 여쭙 보니 다른 나라라고 하시더군요. 역시.

올 여름 인도에 다녀왔어요. 제가 노래할 공연 일정이 하루 포함된 11일 동안의 단체 여행에 뛰어든 거예요. 여행하고 싶은 곳으로 그 나라를 떠올려 본 적은 없었지만 같이 떠나 보겠다는 제안을 받으니 언젠가 들었던 저 장례에 관한 이야기가 떠올랐고요. 그와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 저를 놓아 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거든요. 그 욕구에 충실히 따라 비자를 신청하고 여행 경비를 입금하고, 저는 어느새 델리 공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루트가 정해진 단체 여행이라 그럴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주어질 때마다, 지금까지 인도에서 무엇을 할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일행 중 저보다 인도 여행 경험이 많은 이들의 말에 귀가 팔랑거렸답니다. 이를테면, "여기 왔다면 이진 꼭 봐야 해!" 같은 권유 말이예요. 제 몸은 "움직이는 거보다 좀 쉬는 게 어때?"라고 말하지만 귀는 그들의 말에 이끌려 몸을 당기곤 했어요. 그러한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사람들과의 좋은 추억도, 기억에 남는 여러 풍경도 얻었지만, 솔직히 말해 가장 또렷이 떠오르는 건, 저에 대해 몇 가지 더 알게 된 점입니다. '자아 찾기' 여행을 간 것도 아닌데 말이예요. 그게 뭐였냐면요. 고수를 못 먹는다는 점. 그걸 그곳에 가서야 확실히 느꼈네요. 우리나라에서 먹었던 동남아 음식엔 고수가 들어 있지 않았던 걸까요. 신기하죠. 향기 나는 풀, 허브들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고수만은 예외였어요. 깨끗한 침실과 욕실을 좋아한다는 점. 함께 여행한 인도 경험자들은 이번 여행의 숙소가 그동안에 비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얘기해 주고는 했지만 제게는 그리 쾌적하지 않았어요. 세상이나 저는 그런 것들에 까다롭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서울의 제 방을 보시면 압니다.) 어떤 숙소에서는 방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었어요. 지내다 보면 다들 적응한다고 하지만 11일은 그러기엔 짧은 시간이었나 봐요. 또한 인도의 명물(!) '짜이'보다 이탈리아인이 하는 카페에서 마신 진한 커피가 더 좋았다는. 그리고 여행하는 동안 감자튀김과 시원한 맥주가 왜 그리 생각나던지. 가장 맛있었던 식사는 한 대학의 게스트하우스였던 숙소를 벗어나 인근 호텔에서 먹었던 요리들이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도 요리이긴 했지만 흔히 말하는 현지식이 아닌 서울에서도 (비싼 값을 낸다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였죠.

더불어 자신을 검열하는 데에도 시간을 많이 썼어요. 나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들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인데, 나와 다르다고, 그게 놀랍고 생경하다고 해서 무작정 그들에게 사진기를 들이대면 안 되겠다 같은 생각을 많이 했죠. 게다가 스스로에 대한 그런 태도는 다른 이들에게까지 잣대를 들이대기 마련이라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도 생각했고요. 복잡하죠. 제가 그렇다니까요.

참 좋았던 나무와 숲, 구름과 달을 뒤로하고, 이렇게 허영과 윤리를 같이 껴안고 사는 복잡한 도시민인 나를 한 번 더 보고 왔어요. 여행이란 원래 이런 건가요. 영혼이 되풀이해 세상에 나고 죽는다는 걸 믿고 있는 제게 인도는 특별한 장소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는 어긋났어요. 저는 진짜 비용이 많이 드는 사람이에요. 꼭, 경험해 봐야 안다니까요. 인도에 다시 가 보라고요? 이번엔 다들지도 모른다고요? 흠, 그래 볼까요.

나는 독립영화를 이렇게 시작했다

독립영화 활동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디토크, 그 2탄! 이번엔 온/오프라인 배급사, 애니메이션 영역, 미디어 운동 진영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독립영화와의 인연을 물었다. 그들의 수줍고도 당당한 애정 고백.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내가 모르는 거야

전공은 방송 관련 학과였는데 영화가 좋아 현장 쫓아다니면서 연출이란 것도 해 봤다. 하지만 졸업과 동시에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 취직해 방송 일을 시작했다. 돈도 벌면서 영화도 실컷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친구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골라 본다면 나는 영화를 골라 극장을 찾아다니는 아이였다. 취향이 이러하니 내가 좋다고 하는 영화들은 방송에 소개할 수 없었다. "이 영화 별론데……." 하는 영화를 소개한 적이 더 많았다.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방송 일에 회의도 느끼고, 그런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들에게 "안 유명한 영화만 좋아한다."는 편지를 종종 듣는데, 어떻게 안 유명한 영화만 골라서 좋아할 수 있나,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내가 모르는 거라고 답했다. 관심 있는 일은 일단 해 보자는 마음으로 독립영화를 두드렸다. 그리고 현재 인디스토리에서 단편영화 배급 일을 하고 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독립영화를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__김인화(인디스토리 단편사업본부 국내배급팀)

브랜드력이 있는 영화를 찾아서!

난 경험의 범위가 넓지 않은 편이라, 호기심도 꿈도 다양하지 않았다. 그런데 23살, 인생의 큰 스텝을 밟게 될 무렵, 뒤늦게 오기가 발동하여 180도 다른 분야에 대한 갈망을 몰아 채우기 시작했다. 뒤늦은 사춘기였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그때의 경험들은 내 인생에 전환점을 만들었다. 특히, CGV CINE SHOP에서 영화, 음악, 디자인 관련 아이템을 판매했던 경험과 아시아국제단편영화제 관객심사단으로 활동했던 경험은, '브랜드력이 있는 영화'에 대한 애정을 단단하게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독립영화의 브랜드력에 더 마음이 쓰였고, 독립영화의 브랜드 심지를 찾아 나눌 수 있는 친구이자 매체가 필요하다 느꼈다. 그리고 그때 인디플러그를 만났다. 처음엔 인디플러그 회원으로, 몇 주 후부터 인디플러그 직원으로……. 그렇게 운 좋게 시작해서 이제 3년째, 인디플러그에서 운영하는 독립영화 전문 다운로드 사이트 업무 전반을 맡고 있다. 독립영화에 대한 집중력이 높은 우리 회원들과 함께 독립영화의 브랜드 심지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은 물론, 찾기 힘들었던 독립영화들의 다운로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독립영화의 브랜드를 믿고 나아가는 나와 인디플러그 사이트의 행보에 많은 응원 바라며, 이 매거진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인디플러그(indieplug.net)에서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

__이지호(인디플러그 콘텐츠서비스 매니저)

엄친아보다 행복한, 그 신명과 열정

엄마친구아들처럼 되고 싶었다. 학창 시절 나는 영어 학원을 세 개씩 다니며 기계처럼 공부했다.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는 내 인생의 최대 목표였다. 하지만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정말 엄마친구아들처럼 공부를 잘할 리가 있나. 그저 그런 학생이었던 나는 그저 그런 수능 성적에 맞춰 대학교에 들어갔다. 그렇게 들어간 대학교는 그야말로 신세계였다. 무엇이든 강하게 조이면 결국에는 터지게 되어 있다. 학창 시절부터 눌러 왔던 응어리는 그렇게 터지고 말았다. 정신을 놓고 놀았다. 나는 친구들이 토익학원을 다니며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는 동안 술을 마시고 길바닥에 파전을 부쳤다. 순간의 행복을 즐긴 것이다. 그렇게 부치던 파전이 무르익을 무렵 나는 인디애니페스트의 자원활동가로 지원을 했다. 이곳에서 또한 신명 나게 놀았다. 놀다가 느껴졌다. 인디애니페스트를 위해 일하는 분들의 열정이. 이런 일을 하고 싶어졌다. 순간에 열정을 바치고 싶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은 지금 나의 전부가 되었다. 현재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배급팀 활동가인 나는 지금 행복하다. 엄마친구아들은 얼어 죽을.

__오지영(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활동가, 인디애니페스트 운영팀장)



나는 과연 언제 독립영화를 시작했다

나에게 영화란 친구들 만나 할 거 없을 때나 보러 가던 것이었고, 시네필은 더더욱 아니었고, 독립영화의 존재를 알긴 하지만 딱히 큰 관심은 없었다. 방송이 아닌 미디어 따위가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어느 때였다.

시작은 아매였다. 2006년 평택 대추리, 들소리방송국에 사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촬영, 편집할 사람이 필요했다. 나는 마침 그곳을 기웃거리며 놀고 있었다. "그럼 너도 하자!"며 그곳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아매로 배운 간단한 촬영법과 편집 툴 사용법을 알려 주었다. 이후 들소리 활동이 정리되고 나서도 그때 아매로 배운 촬영, 편집 기술을 활용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가까운 곳에서 미디어 교육을 하며 미디어 활동 언저리에 서식하게 된다. 하지만 "선생님은 무슨 작품 찍었어요? 보여 주세요."라는 지속적인 요청은 어느 순간 '감독'이 되어야겠다는 욕구가 되어 나타났고, 그것은 미디어엑트 독립다큐멘터리 제작 과정 수강으로 이어졌다. 4개월의 과정을 거치며 수료작을 내고 상영도 하고 '감독'도 되었는데, 나는 정말 '감독'이라는 호칭이 오글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게다가 다음 작품에 대한 의지도 별로 없어, 나는 독립영화와 맞지 않나 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소개로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사무국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나는 독립영화 감독이 아닌 미디어 활동가의 삶을 살게 된다. 독립영화인들과 교류하면서, 그게 벌써 햇수로 5년째. 자, 그럼 나는 언제 독립영화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__보경(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사무국)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한국의 독립영화인, 영화인, 문화예술인들의
희망과 바람으로 이루어진 공간
지역, 시민사회, 소수자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동체 상영관
새로운 경향의 독립영화를 발굴하고,
독립영화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독립영화를 만나세요!

INDIE SPACE EVENT

매월 1일은 독립영화 보는 날

매월 1일,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독립영화의 매력을 흠뻑 느껴 보세요.
모든 상영작 1천 원 할인, 다양한 이벤트와
독립영화의 특별한 만남이 함께합니다!

INDIE SPACE MEMBERSHIP

나는 독립영화愛이다

독립영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기다립니다.
독립영화와 만나는 가장 가까운 길,
독립영화를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독립영화의 애인이 되어 주세요.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53 2F
Tel 02.738.0366
E-mail indie@indiespace.kr
www.indiespace.kr
Cafe.naver.com/indiespace
Facebook.com/indiespace
Twitter.com/indiespace_kr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1천 원 할인쿠폰
유효 기간: 2013년 11월 30일까지

www.indiespace.kr / 문의: 02.738.0366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53 2층

WHY NOT?

서울독립영화제2013

2013.11.28.Thu. - 12.6.Fri.

CGV압구정 &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www.siff.or.kr fb.com/siff.kr Twitter@siff_kr



SIFF2013 자원활동가 모집

서울독립영화제2013을 함께 꾸려 나갈 영화제의 꽃!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지원 방법과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iff.or.kr)를 참고하세요!

모집 기간 9월 23일(월) ~ 10월 9일(수)

활동 분야 프로그램팀, 운영팀, 상영팀, 기록팀, 데일리팀, 관객심사단

활동 기간 11월 28일(목) ~ 12월 6일(금)

SIFF2013 경쟁부문 상영작 발표 10월 14일(월) | 영화제 홈페이지

SIFF2013 초청 상영작 발표 10월 21일(월) | 영화제 홈페이지

서울독립영화제 후원모임 인디당

세상을 향한 이로운 毒, 독립영화!

독립영화를 단단하게 지키고 싶다면, 인디당원이 되세요.

서울독립영화제 후원모임 인디당은 영화제에 대한

직접적 후원뿐만 아니라, 관객 및 영화인이 참여하는

독립영화 사업에 튼튼한 기초가 되고자 합니다.

후원 종류 CMS 정기후원 / 일시후원 / 현물 · 재능후원

후원 방법 서울독립영화제 홈페이지(www.siff.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801-666717 (예금주 서울독립영화제)

후원 혜택

- 인디당 배지를 드립니다.
- 서울독립영화제 초대권 및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 독립영화 인터뷰 전문 매거진 NOW를 우송해 드립니다.
- 후원금은 세액공제 됩니다.

독립영화 인터뷰 전문 매거진 NOW 구독 방법

구독료 1호당 1,000원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5-101-666706 (예금주 서울독립영화제)

신청 및 문의 prog@siff.or.kr 02-362-9513

위의 계좌로 구독료를 입금한 후 이메일(prog@siff.or.kr) 또는 전화(02-362-9513)로
받아 보실 분의 성함, 주소,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독립영화 인터뷰 전문 매거진 NOW 배포처

서울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	강원
서울아트시네마	뽕스복스 홍대점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스폰지하우스	책방 이음	대전/충남/충북
씨네코드 선재	책방 풀무질	대전아트시네마
씨네큐브	후마니타스 책다방	청주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몽소	광주/전남
아트나인	물고기	광주극장
아트하우스 모모	상수동카페	전북
인디스페이스	성영태 커피 하우스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인디플러스	아디스아바바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지프페고)
필름포럼	유어마인드	대구/경북
한국영상자료원	이리카페	동성아트홀
KT&G 상상마당 시네마	카페 공드리	부산/경남
KU시네마테크	경기/인천	국도예술관
KU씨네마테크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영화의전당
미디엑트	성남미디어센터	프롬더북스
서교예술실험센터	영화공간 주안	
서울영상미디어센터		



NO.1

2013.09.25

발행처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책임편집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

편집주간 조영각

기획총괄 김동현

편집장 김은아

편집위원 김유리, 김지은, 박현지, 신미혜, 이도훈, 최민아

편집자문 장병원

디자인 이혜경

인쇄 한울타리

-

등록일 2001년 12월 10일

등록번호 제16호-2444호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65-5 (공덕동 82-9) 2층 (121-800)

전화 02-362-9513, 02-334-3166

팩스 02-363-3154

이메일 prog@siff.or.kr

홈페이지 www.siff.or.kr | http://indienow.kr

-

독립영화 인터뷰 전문 매거진 NOW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으로 발행됩니다.